

# 설득, 인간의 욕망에 다가가는 '말의 기술'

## 행복한 책 읽기

법률 '인생 수업'  
(휴刊)

### 레토릭 샘 리스 지음

간디는 검을 든 적이 없고, 마르크스는 총을 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 '레토릭'(rhetoric)을 치면 11만8000개의 결과가 뜨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오바마와 관련 있는 검색이다. 수사학(修辭學)으로 번역되는 레토릭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설득의 기술을 100배 더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간디, 마르크스, 오바마는 적절한 레토릭 덕분에 칼과 총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성과를 냈다.

영국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저자 샘 리스의 '레토릭'은 말의 기술을 다룬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의 첫 번째 요소는 가능한 한 최고의 설득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공연장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간디는 검을 든 적이 없고  
마르크스는 총을 쏜 적이 없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사학'

공연장 주인이 입장료를 올리고 싶다면 청중을 설득해야 한다.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거나 유명한 밴드를 초대할 수 있거나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등 비싼 입장료에 대한 설명과 청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투자자를 설득할 때는 이 같이 설명해서는 안 된다.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설득해야 한다. 설득 대상에 따라 레토릭이 달라진다. 핵심은 청중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다시 3가지로

나눈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연설가의 성실성을 기반으로 청중과 관계를 확립하는 방식, 로고스는 청중의 마음을 이성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파토스는 청중에게 분노, 동정, 두려움, 환희 등의 감정을 돋우는 방식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자동차를 파는 남자가 "제 중고차를 사세요. 제가 바로 자동차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에토스), "당신 차는 고장이 났고 제 차가 판매 중인 유일한 차입니다"(로고스), "이 세계가 양이는 희귀 질환에 걸렸는데 이 자동차가 저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이 차를 팔아서

고양이의 치료비를 대야 합니다"(파토스)는 등의 설득의 단계가 있다.

또 이 과정에 말투, 제스처, 어조, 어순, 이미지, 태도 개념 등을 그 사람과 동일시해 그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지 부시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텍사스 주의 석유 채굴 인부와 같은 옷을 입고 그들처럼 행동했다. 에토스의 방식을 철저히 따른 것이다.

저자는 "레토릭을 안다는 것은 정치의 토대, 문화의 DNA, 생각의 원리와 같은 중요한 핵심을 꿰뚫어보는 일이며 인간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감명을 주고 고무시키기 위해, 존경받고 정당화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레토릭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수단이다.

〈청어람미디어·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품의 현실에 부응하듯 서점가는 생활 지침서나 실천법이 가판대를 메우고 있다. 건조한 일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통해서 감화시키고 힐링할 수 있도록 전도한다.



이 책의 저자 법륜 스님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로 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제목보다 부제가 더 눈에 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새봄에 예쁜 꽃이 피면 꽃놀이도 가고, 가을에 단풍이 곱게 물들면 단풍놀이도 간다. 알록달록한 꽃도 아름답고, 울긋불긋한 단풍도 봄꽃 못지않게 아름답다. 단, 가을에 단풍이 물들지 잘 물들어야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단풍이 잘 물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인간은 태어났기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왕 태어났으니 더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잘 살기 위해 수업을 받지만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

## 지금 당장 행복하라

그래서 대안으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卽問卽設)이 화두가 되고 있다. 현대인의 공허함과 인간성 상실이 일탈을 넘어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내놓은 즉문즉설은 종교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인생의 지혜를 제시했다. 또한 1988년 정토회를 설립하여 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라는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 여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스님과 대화하듯 쉽게 풀어놓았다.

가장 인상적인 말들을 꼽으라면 ‘일어난 일은 언제나 잘된 일이다’, ‘죽고 싶다’는 말은 ‘살고 싶다’는 신호’, ‘살 꼴처럼 바삭한 이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 ‘세상에서 입은 은혜는 갚고 떠나기’ 등 주옥같은 메시지가 짝 찔다.

읽고 있으면 걸치고 있는 옷마저도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 스님이 갖는 구도자만의 어떤 특별한 철학이 숨어있어 뒤를 돌아보게 한다.

잘 물든 고운 단풍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스님이 현대인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무엇이며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인생 교과서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받아보시라.

우리 인간의 삶이 기계적이지 않는 한 우리의 언어는 살아있다. 언어 자체에 흥취와 성찰이 있다. 그래서 책은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이다. 책을 통해 정신을 가다듬고 심신을 단련시켜 성숙해지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값진 인생 수업이다.

추운 겨울이다.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뭇이 어우러진 겨울 정취 가득한 숲길을 산책해 보자. 당신은 지금 당장 행복할 것이다.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 새로 나온 책

▲악의 어두운 창고에서=과학수사의 대가 마르크 베네케가 그의 아내인 범죄심리 전문가 디리아 베네케와 함께 범죄자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7년 동안 300여 명의 어린 소년을 살해한 콜롬비아의 한 남자 이야기. 자신의 딸을 24년간 지하실에 감금하고 7명의 아이를 낳게 한 아버지이자 남편 이야기 등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괴물'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들은 정말 타고난 살인마인지 확인해 본다.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기 2=강양구 과학·환경 전문기자가 '과학사회학' 또는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의 문제의식을 담아냈던 책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기'의 후속작을 8년 만에 내놓았다. 1권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의 틀을 제공했다면, 2권에서는 그 틀을 가지고 날이 갈수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재미 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언어의 기원을 살펴보면 인문학을 공부하는 책이다. 언어가 생기게 된 유래와 그것에 얽힌 사연 등을 찾아가다 보면 그 언어를 둘러싼 시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인문·사회과학적 개념 등이 얽히고 설켜 있다. 책은 인문학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의 키워드를 망라해 정리했다. 음식문화, 식물·동물·자연, 대중문화와 소비문화 등 총 99개 키워드

▲대한국 국가미래전략 2015=30년 후 한국을 대비하는 카이스트 석학들의 미래전략. 그들은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가?' 깊이 있는 통찰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그들이 전망하는 '30년 후의 한국'은 참혹한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날로 심화되는 사회갈등... 책에서는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작가=프랑스의 작가, 편집자, 아트 디렉터, 번역자 등과 공적이거나 사적인 여러 통로를 통해 좌담, 대담, 인터뷰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생생하게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담아낸 한국-프랑스 문화 교류의 현장. 프랑스 어린이책 번역가로, 아동문학평론가로, 편집기획자 겸 변신을 거듭해 온 출판사 '바람의아이들' 최영정 대표가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우리 아동문학의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려오기 위해 걸어온 행보를 쌓아온 결과물을 담았다.

▲추출산 고령화, 에너지·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날로 심화되는 사회갈등... 책에서는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추출산 고령화, 에너지·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날로 심화되는 사회갈등... 책에서는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추출산 고령화, 에너지·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날로 심화되는 사회갈등... 책에서는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 어린이 책

▲로지네 현관문에 쪽지가 있어요=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 로지네 현관문을 두드리는 순간, 심심해하는 세상 모든 아이들은 신나는 놀이거리를 발견하고, 어른들은 잊었던 동심을 떠올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상상만으로 아이들이 무료한 시간을 얼마나 재미있게 보내는지, 순수한 동심을 느낄 수 있다. (시공주니어·8000원)



▲통합 교과 지식 100 : 인물은 초등 교과서에 언급되는 인물을 위주로 선정해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 지식 책. 고

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활약한 100명의 정치가,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 탐험가,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아우르면서 경계 없는 방대한 지식을 망라했다. (주니어RHK·1만5000원)

▲생각의 크기만큼 자란다는=위인들의 일화를 통해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책. '창의력이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70명의 위인들이 답한다. 남들과 다른 생각, 앞선 생각으로 세상을 바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유아익스·1만2000원)

▲엄마를 빌려 드립니다="잔소리쟁이 우리 엄마, 다른 엄마랑 바꿔 주세요!" 하루 종일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고 심술이 잔뜩 나 있던 주인공은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 '엄마 가게'에서 완벽한 엄마를 빌리게 된다. 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엄마는 찾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진짜 엄마'를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푸른숲주니어·1만원)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www.cjhellovision.com